서울시교육청, 2025학년도까지 '학급당 20명 시대' 연다

'과밀학급 해소 추진방안' 발표
초중고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3.8명
안전한 학습·맞춤형 수업환경 조성

서울 용산동 용산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5400여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이 학급증설, 학생 배정 등을 통해 2025년 경에는 82%까지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까지 과밀학급을 줄여 '학급당 20명 시대'를 열기 위한 '과밀학급 해소 추진방안'을 5일 발표했다. 교육부 기준에 따르면, 한 학년이라도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을 경우 과밀학급에 포함된다.

◆서울 내 학교 10곳 중 2곳이 '과밀학교'

올해 서울 지역 초·중·고 전체 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3.8명이다. 평균으로 보면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교별로 편차가 크다. 초·중·고 전체 1316개 학교 중 22.2%인 292개 학교가 과밀인 상태다. 학급으로는 ▲초등학교 98곳(1916학급) ▲중학교 108교(2064학급) ▲고등학교 86교(1477학급) 등 총 5457학급(15.7%)에 달한다.

서울의 과밀학급 발생의 주요 원인은 다른 중·소도시에 비해 학령인구가 특정 지역에 밀집돼 있고, 지역에 따라 학생 분포 차이가 커 학생 배치의 불균형과 지역별·학교별 편중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도시의 경우 인구밀집지역에서 과대·과밀학급 문제가 항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영갑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지역의 거주형태나 통학여건 등 다양한 이유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생기고, 자녀들을 선호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향으로 인해 신입생 배정 시기가 되면 항상 민원의 소재가 되고 있다"며 "이처럼 과밀학급이 구조적성격을 갖고 있어 정책당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특정학교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학생 분산 배치를 통한 과밀해소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과밀학급 상태가 지속하면,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다양한 교수 학습 활동, 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발생하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교실 내·외에 물리적 거리두기가 어려워져 방역관리와 감염병 대응에 취약한 점이 문제로 꼽힌다.

◆교실증축·모듈러교사 등 학급증설 및 균형적인 학생 배정 추진

서울시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 추진방안'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습환경과 맞춤형 수업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로 지친 학생들의 정서 회복과 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 내 과밀학교 292교, 5457학급 중 239교(81.9%), 4504학급(82.5%)의 과밀상태를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실전환과 교실증축, 모듈러교사 설치 등을 통해 55교 1284학급의 '학급증설'을 추진한다. 또한, 학생 밀집도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학교 간 균형적인 학생 배정을 통해 86교 1670학급의 과밀학급을 추가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추가로 같은 기간 저출산·학생 수 감소로 98교 1550학급가 해소될 것으로 교육청은 내다봤다.

이를 통해 연차적으로 ▲2022년 65교 ▲2023년 29교 ▲2024년 53교 ▲2025년 92교가 해소돼 과밀학급의 약 82%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과밀학급 해소 대책은 개별학교별로 보유하고 있는 유휴교실을 파악하고 일반교실로 리모델링해 학급을 증설하는 방법도 포함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 여유 공간 발굴이나,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등 학교가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사립초에 대해는 학생 정원을 28명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학교와 협의해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영갑 과장은 "학교구성원들이 과밀학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과밀해소의 절박성을 공유하게 된다면 계획보다 과밀해소의 시기를 앞당기고,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해소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미해소 53교 953학급에 대해서는 개축 및 학급증설 규모의 확대, 학교와의 협의 등을 통해 과밀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색조·기초 화장품 보다 '향수' 더 팔렸다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
'2020 한국뷰티마켓트렌드' 발표
코로나로 향수 인기 21.5% 상승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상반기 크게 감소했던 뷰티 시장 규모가 지난해 하반기 들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색조·기초 화장품보다 향수 제품의 인기가 크게 늘었다.

5일 성신여자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센터(헬스앤뷰티 데이터 연구소)가 전문 리서치업체 트랜드리서치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2020년 한국뷰티마켓트렌드'에 따르면 지난해 뷰티 시장의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8.9% 감소한 14조1324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상반기 뷰티 시장의 전체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8.4% 감소한 6조7774억원을 기록했다.

세분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스킨케어 시장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한 4조9414억원을 기록했다. 메이크업 시장 역시 지난해에 비해 19.1% 감소한 1조3971억원의 규모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 뷰티 시장의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7조3550억원을 기록하며 약간 상승했다.

동기간 하반기 뷰티 제품의 세분 시장 규모를 분석한 결과, 향수 제품은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한 5946억원을 기록했으며, 색조 화장(메이크업) 제품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1조4065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초 화장(스킨케어) 제품은 전년 대비 0.4% 증가해 5조3539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에 따른 화장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시점인 지난 4월 기준 남성 응답자 696명 중 91.5%이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화장품을 사용하는 남성 응답자의 86.8%가 기초 화장(스킨케어)만 한다고 답했으며, 8.5%가 전혀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성의 경우, 응답자 704명(99.9%)이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색조 화장을 하는 비중은 81.1%로 나타났다.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의 헬스앤뷰티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과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만 13세 이상 국내 거주 남녀 1400명씩 총 2800명에 대해 실시됐다.

/이현진 기자

지난달 30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타슈켄트2 세종학당' 개원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하대

인하대, 우즈벡 '타슈켄트2 세종학당' 개원

주요 언론사·기관·기업 대표 참석

인하대학교와 타슈켄트 인하대학교(IUT)가 지난달 30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타슈켄트2 세종학당'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인하대와 타슈켄트 인하대는 올해 상반기 세종학당재단의 2021년 신규세종학당 사업 운영기관에 선정돼 타슈켄트 인하대 내에 '타슈켄트2 세종학당'을 설립하고 지난달 수업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호 타슈켄트2 세종학당장, 무자파르 드잘라로브 타슈켄트 인하대 총장, 팽주만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장, 허선행 타슈켄트1 세종학당장, 김종선 한국산업은행 타슈켄트 지사 행장, 이창훈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사장, 박재윤 대한항공 지점장, 김태영 조폐공사 현지법인 GKD 본부장 등 우즈베키스탄 내 주요 기관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현진 기자

울산대 예비창업가 모여 '대학 스타트업 캠프'

경영 마인드 고취 목적

울산대학교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 창업교육센터는 강원대학교 및 한양대학교 ERICA와 공동으로 '2021년 제3회 3개대학 스타트업 RPG 캠프'를 지난 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머큐어앰배서더 울산에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3개 권역 LINC+육성사업단이 연계해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예비 창업가로서 경영 마인드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상 기업의 경영 상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기업 경영관리 능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대회에 참여한 팀은 업력 3년을 가진 가상 기업의 경영진이 돼, 의사결정에 따라 경영 성과 결과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웹 기반 교육용 창업 경영 시뮬레이션인 '비즈-챔피온' 프로그램을 활용해 4라운드에 걸친 경영 활동을 수행했다.

각 팀은 매 라운드마다 경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미션을 확인한 뒤 단기 목표로 생존을 위한 경영 성과를 창출하고 장기 목표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키우는 과제를 부여받았으며, 전략 수립·의사결정 과정·경영 성과 확인 및 분석 과정 등 전반적인 경영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울산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울산대

울산대는 이번 캠프에 3개 팀이 참여해 체인트리팀(일반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석사과정 윤여국 씨 등 4명)이 최우수상을, 아산팀(IT융합학부 3년 이찬미 씨 등 4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현진 기자

액체 알코올 검출용 섬유형 센서 개발

구형준 서울과기대 교수 연구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구형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연구팀(제1저자 박예진 연구생)이 김용주 국민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재부품융합연구부문 소주희 수석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분자량이 다른 액상 알코올을 손쉽게 구분해낼 수 있는 섬유형 센서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팀은 전도성 나노 충진재가 친수성 고분자 섬유에 분산된 형태의 복합체 섬유를 이용하여 알코올 센서를 개발했다.

이 섬유형 센서는 수화된 상태에서 알코올에 노출 시 섬유 내부의 물과 외부 알코올의 물질전달에 의해 부피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알코올의 종류에 따라 저항 변화가 크게 달라짐을 실험과 이론적 계산을 통해 확인했다.

이 섬유형 알코올 센서는 특히 탄소원자가 한 개 붙어있는 메탄올(CH_3OH)부터 두 개 붙어있는 에탄올(C_2H_5OH)에서 다섯 개 붙어 있는 1-펜탄올($C_5H_{11}OH$)까지 다섯 종의 1가 알코올을 십여 초 만에 정확하게 검출했다. 즉, 본 센서를 이용해 단일 액상 1가 알코올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었다. /이현진 기자